

포교사고시 논란

정화회의 무기연기

포교원 예정대로 실시

22일 예정된 4회 포교사 고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정화회의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18일 포교사고시의 연기를 알리고, 시험일이 정해지면 응시자에게 서신이나 신문지면을 통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발달3층 임시 사무실에서 계속 종무를 보고 있는 포교원 종무원들은 예정대로 포교사고시를 치르기로 하고, 응시자들에게 차우 없도록 당부했다. 문제지는 이미 인쇄된 상태이며, 면접관 및 시험 감독관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어려운 때일수록 정진합시다”

영남불교대 10년기도 입재 만일염불회·정토회 1만일결사

매일 108배수행일자-하루 천원 보시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어렵다. 실업의 공포는 가시지 않고 있다. 실직노숙자들은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 조계종사태로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도 정신적 위기를 겪고 혼돈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한다. 본지의 '10만배 기도운동 확산' 기사(1996. 23면)가 나간 후 영남불교대학에서 10년 기도예에 입재하는 등 기도결사가 주목받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관음사(주지 우학) 신도 5천여명은 19일부터 '10년 기도정진결사'를 입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매일 108배 △매일 금강경 1/3 독송 △매일 2시간 관음정진 △년 1회 이상 3천배 △년 3명 이상 포교 △불 천절하기 여섯 가지 수칙을 정했다. 2008년 음력 10월 초하루 회향한다.

매일 사시예불 때마다 금강경 독송과 108배 기도를 집전하고 있는 우학스님은 “기도는 언저를



정토행자들이 지난 10월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제2차 천일결사중 제9회 입재식을 진행하고 있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해준다”며 “불자들이 모여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수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만일염불회는 이미 지난 8월 2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1만일 아이타불염불 결사에 들어갔다. 93년 3월 시작된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1만일

결사 가운데 제2차 천일결사를 진행중이다.

정토회의 1만일 결사는 기도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해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사 참가자들은 1백일 단위로 하는 입재 때마다 정토회에서 필경하고 있는 북한돕기, 인도지원, 환경보호 등의 실천과제를 선택한다.

1만일 결사는 입재와 회향식 때를 빼놓고는 개인정진으로 진행한다. 특별히 다섯 가지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108배를 하며, △이 때의 느낌을 수행일지에 기록한다. 또 △하루 1천원씩 보시해야 하고 △천일·백일 입재·회향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1만일 결사는 지금까지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 1천36명이 참여하고 있다. 1만일결사 중 제2차 천일결사는 99년 1월 13일 회향한다. 영남불교대학 053-474-8228, 475-3707, 영불만일회 02-732-1206, 정토회 02-581-4077.

이윤호·오종욱 기자 (yhlee@buddhania.com)

뉴스 & 뉴스

봉은사 신임주지 진산식

봉은사는 19일 제20대 주지 원혜스님 진산식을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회 부의장 명진스님, 건봉사 주지 해장스님, 봉은사 비승대학위원회 안승기 위원장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원혜스님은 취임사에서 “가람수호와 전법포교, 도제 및 인재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사찰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신병포교 활성화’ 세미나

군순대(당장 이희용)은 24~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현역 및 예비역 군부사와 군불교 후원단체 대표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군순 배를 3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군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키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세미나와 기념법회, 정기총회 등으로 진행됐다.

‘신병의 불교신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군부사 신병교육을 위한 제안’ ‘신병포교의 현황’ ‘신병포교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정기총회에서는 군부당 재정부명확을 골자로 한 군순단체를 개정했다. 정성운 기자

새불교승가회 3돌 법회

새불교승가회(승가회)는 12월1일 조계사 교화사 무극 2층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 기념법회, 2부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되며, 정기총회에서는 98년 사업 및 결산보고, 99년 사업계획 심의, 회회개정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nia.com)

달성 법계사 불보살단

조계종 법계사 주지 완암, 경복 달성군은 24일 삼촌불교연합회를 봉행했다. 법계사 삼촌불은 4차반 크기의 비로자나불과 3차반 크기의 문수·보현보살이며, 청동과 불로 조성됐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nia.com)

승가대 신입생모집 요강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는 99학년도 신(권)입생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일반전형은 내신 40%, 필7 40%, 면접고사로 우선 선발하며, 특별전형은 조계종 승려로서 고졸이상 장년 대교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불교학, 영적학, 포교사회학, 사회복지와 등 총 1백22명을 모집하며 원서교부 및 접수는 12월 14일~99년 1월 11일 까지다. (02)925-5507(교관 202, 205) 이은자 기자

군종화합 세미나

장교 150여명 참석

군내 종교화합을 위한 군종세미나가 17~18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국방부 군종실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영관급 이상 군종장교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6면)

장교보수교육의 일환으로 열린 세미나는 ‘종교화합을 위한 불교적 제안’ ‘군내 종교간 공존을 위한 군종의 과제’ ‘한국종교의 평화적 공존방안’ 등의 주제 발표와 분과토론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세계유산보호 조례제정 촉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세미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22~23일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세계유산지정 지역자치단체장과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세계유산보호위원회의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5점과 예비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대책으로 세계유산보호위원회의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갖고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모니터링 방법론의 개발 △문화유산보호 시민봉사대 발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는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또 문화재 관할을 위한 모니터링

복지부, 사업비 지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실직자 정보센터’ 설립 지원단체로 선정돼 각각 9천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화장·납골 장묘법안

황규선의원등 국회제출

‘화장·납골 중심’의 장묘법안이 18일 한나라당 황규선의원 등 5명의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황규선 김병태 오양순 양성철 정의화의원들이 제출한 ‘법률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 신고제로 전환 △시합부 매장제 도입 △분묘 17당 면적을 현행 30제곱미터에서 10제곱미터 이내로, 개인묘지 규모는 현행 8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납골·화장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13일 실직자정보센터 설립계획을 신청한 불교 기독교 등 16개 종교단체 가운데 9개를 선정. 모두 6억9천만원을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98년 11~12월 정보지원센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98년 11월 이후 불교사회복지 정보 축적 △98년 11월~99년 4월 조계종 사회복지 현황 조사 △99년 1~4월 불교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정보 네트워크 구축사업 △D/B 개발사업 △조계종 사회복지 현

황조사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후원사업 등이다.

종단협회는 조계·태고·천태·진각종을 포함한 각종단의 사회복지 정보를 통합하는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된 조계종과 진각종을 비롯 태고종과 천태종을 주축으로 불교 사회복지정보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의 공동사업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우리가 남인가’ 등 교계 4개 프로그램 실업극복 2차 제안사업 선정

교계 4개 단체가 제안한 실업극복프로그램이 실업극복국민운동이 지원하는 실업극복 제안사업 제2차 공모에 16일 선정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우리가 남인가’(지원금 1억221만5천원),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실직가정 어린이 희망만들기 열린학교’(6천8백99만원, 두 번째로 선정), 새불교승가회(승가회)의 ‘실직자가정 위한 자비와 사랑의 집’(1천8백만원), 덕유종과 진각종의 ‘생활보호대상 실직자 창업지원서비스’(4백10만원) 등이 선정됐다. ‘우리가 남인가’ ‘가족사랑 수당’(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자조클럽 ‘두레’를 발족시키며, 가족문제 예방·극복하기 위한

‘우리가 남인가’ 등 교계 4개 프로그램

‘부부사랑 가꾸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열린학교’는 실직가정 어린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돕고,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발·웃 모으기 운동’은 98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서울 강북구, 도봉구 관내 저소득 실직가정 약 1백 가구에 쌀과 옷 지원하는 사업. ‘생활보호대상 실직자 창업지원서비스’는 부천시 중동 아파트 단지내의 생보자를 대상으로 2·3명씩 10개의 조를 편성해 떡볶이, 튀김, 풀빵, 호떡, 아이스크림(여름용) 등의 기가사용 및 요리법을 교육한 후 후원자의 제조기기를 지원한다. 김재경 기자

목탁 소리

정성운 (취재1부 차장대우)

스님들끼리 불리자 충돌을 빚었고, 이 모습은 텔레비전을 통해 온 국민의 안방에 전해졌다. 외국의 언론도 조계종사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세계적인 뉴스급사인 BBC와 CNN은 조계종종무원 정사에서 벌어진 불상사를 12일 정오 뉴스의 세 번째로 보도했다. 한국과 한국불교를 어찌 볼 것인가. 몇 주 전까지는 이 안에서 50만원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 일을 전하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재가불자들이 목탁소리를 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적다 하더라도 불교내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호지하는 뜻이 아닐 것임이다”라며 비장한 마음을 내

한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사태는 혼미를 계속하고 있다. 어디까지 가려는가. 스님이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피습당하는 사건마저 일어났다. 월주스님의 후보사퇴 이후 조계종사태는 정화회의와 총회의 양자대결로 치달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불자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그래도 불자들은 스님들을 여전히 삼보의 한 축으로 공경하고 있으며, 거룩한 스님들이 중생들을 향해 참된 삶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월주스님과 월탄스님은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진정으로 미안하다면,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서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 벗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무꾼가모니불. (swjung@buddhania.com)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쉼(냄새)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장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언마의 태축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쉼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외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조(創造)시킵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울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무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어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딱딱하다. (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 15. 목이 빼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6. 변비가 있다. ( )
- 17. 당뇨와 감성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선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전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줄나는 전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증상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나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된 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